



전건협 전북도회, 각 시군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가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협회는 지난 13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전달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주시 등 도내 각 시·군을 방문하며 총 540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임근홍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단체장들과 관계자들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예년보다 더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전주대 박현일 과장, 대학혁신지원사업 장관 표창

전주대학교 기획예산실 박현일 과장이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유공자로 선정,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2006년 입사해 2019년부터 기획예산실, 빅데이터센터에서 근무하며 빅데이터 기반 학생성공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성공 프레임워크 기반 핵심 코어와 액티비티를 설계했다. 특히 빅데이터센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확대 적용해 교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표준화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박현일 과장은 "전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편리하게 상담시스템, 학습분석 서비스, 지능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학생 개인이 원하는 성공에 다가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김용승 주임, 대학학사관리 우수 직원 표창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 김용승 주임이 대학(원) 학사관리 우수 직원으로 선정,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주임은 2016년 입사해 2020년부터 학생지원실에서 근무하면서 학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축을 지원하고, 학생활동 중심 공간을 구축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정부와 교육부의 대응 지침을 교내 구성원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교육,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표창을 받게 됐다. 김용승 주임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잘 지켜준 모든 교내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각급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 각 부서 교직원들의 협조 덕분에 받은 상이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안전한 캠퍼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이아름 학생, 5분 셀프마케팅 대회 '대상'

우석대학교 IINC+사업단과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가 공동 개최한 '제7회 5분 셀프마케팅 프레젠테이션 온라인 경진대회'에서 이아름(한양학과 4년)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재학생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경진대회는 사전 특강과 1:1 서류클리닉, 자기PR 비대면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심사결과 이아름 학생은 내용제약에 대한 기업분석을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윤중부(항공서비스학과 3년) 학생과 김하늘(국방기술학과 4년) 학생이 최우수상을, 홍창수(태권도학과 4년) 학생과 박시안(간호학과 3년) 학생, 강다현(정보보안학과 2년) 학생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남건현 총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기 이해와 강점 분석 등 다양한 채용방식에 대한 자신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역사회 발전 위한 활동에 적극”

전주시설공단, 노사 한뜻 이웃돕기 성금 7685만원 기부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30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노사가 한 뜻으로 모은 성금 7685만 원을 전주시세에 전달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했다.



또한 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강성필)도 이날 밤을 굶는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밥상' 사업에 써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전주시세에 전달했다. 공단 노조는 '엄마의 밥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년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처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많은 바역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필 위원장은 "공단 발전의 한 축으로서 노사가 함께 이룬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노조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왕궁초, 전북교육청 지정 학교-마을 협력형 어울림학교

왕궁초등학교(교장 김복희)는 30일 마을의 특기노인들과 함께하는 마을 사랑 실천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지정 학교-마을 협력형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왕궁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특화해 세계질 행복학교를 운영중다.



12월 27일~30일은 마을과 함께 온기를 나누며 성장하는 우리 라는 슬로건으로 문화예술(연극) 발표회, 2021 겨울나눔데이 놀이장으로 떠나는 베트남 여행(다문화), 겨울전래놀이 우리 힘으로 펼쳐는 장기자랑 등으로 구성된 겨울행복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겨울나눔데이는 아이들이 직접 과일과 원단을 활용 한 과일수제형을 만들어 주변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만드는 과정에서 코로나19와 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다는 아이들의 의견이 모여져 왕궁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왕궁초등학교 어린이회장 구하정 학생은 "마을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마을의 활어버찌, 할머니들께 직접 전해주지 못했지만 저희가 만든 수제침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행복한 마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 최고 등급 달성

남원시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실시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 평가에서 2009년 센터를 개소한 이래 최초로 최우수 B등급을 받으며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도약했다.



센터 평가는 전국 158개 센터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센터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남원센터는 취·창업지원과 서비스제공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이탈로 구인구직의 감소, 대면 상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네이머 밴드 "자복"을 활용한 실시간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직업교육훈련, 인턴지원금,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및 채용기업 사후관리 등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관내 기업체 네트워크를 통한 찾아가는 기업 교육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위해 모

든 직원이 발로 뛰며 일궈낸 성과다. 정남훈 센터장은 "내년에도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비대면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선의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이2동, 이상선 어르신 노인일자리 소득 전액 기부

전주시 우이2동주민센터(동장 장덕현)는 30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이상선 어르신이 동장상에 찾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백8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우이2동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 어르신은 지난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쓰레기 줍기 노인일자리에 참여해왔다.



팔복동새마을부녀회, 관내 취약계층에 백미 지원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새마을부녀회(회장 한금자)는 지난 29일 신년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팔복동 주민센터(동장 김인택)에 백미 70포를 기탁했다. 팔복동 새마을부녀회(회장 한금자)는 지역이동센터 간식나눔 경로당 청소 봉사, 마을 환경정비활동 등을 통하여 꾸준히 지역봉사를 실천하고, 각종 명절 및 이웃돕기 행사를 펼쳐 팔복동에 거주하는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눔을 실천해 온 단체다. 한금자 회장은 "이번 신년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목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이웃나눔을 준비했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부녀회가 되기 위하여 꾸준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대 고진형 학생,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전북대학교 수의대 고진형 학생(본과 4년)이 2021 대한민국 인재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고진형 학생은 재학 중 전문기급 인공지능 개발 실력을 쌓아 제2회 오아시스 해커톤 2021 Google DSC Korea 등 여러 프로그래밍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외국어 실력을 발휘해 10년 가까이 서울지방경찰청 통역요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한 사회봉사를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미래의 동량이 되기 위해 도전해 나가는 우수한 청년들을 발굴해 성장 가능성을 격려하고 시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재상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년간 2200여 명이 선발된 바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100명의 인재(고교생 50명, 대학생 및 일반인 50명)들이 최종 선정됐다.

고진형 학생은 "수의학과 컴퓨터공학 지식을 동시에 갖추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며 "저 혼자에게 주는 상이 아닌 부모님과 함께 저를 가르쳐 준 은사님들께 드리는 상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컴퓨터공학을 이해하는 예비수의사로서 활발한 의료 AI 개발경쟁의 세계적 추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진안읍, 전주 일일삼한방병원과 협약 체결

진안군 진안읍과 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주 일일삼한방병원과 30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상호협력체계를 정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육안문 진안읍장, 이우석 진안읍이장협의회 회장, 최철 진안읍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양선호 일일삼한방병원 대표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진안읍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각종질환예방, 진료 상담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안문 진안읍장은 "협약으로 관내 의료 쇠퇴계층 주민들이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의료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의 복지 제고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일삼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후유증과 수술 후 재활 치료 등을 위한 한방 중상병원으로 양·한방 협진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79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윤성 기자



전북교육청 운전직연합회, 사랑의 장학금 기탁

전북교육청 운전직연합회(회장 차재영)는 회원 1인당 1만 원씩의 후원을 받아 장학금을 모금, 도교육청에 사랑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차재영 회장을 비롯한 임혜량 총무국장, 정지훈 재무국장, 형정욱 등 임원진 4명은 30일 도교육청을 방문, 김승환 교육감에게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장학금을 기탁해 준 전라북도교육청 운전직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를 통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재영 연합회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희망을 잃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